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시에 5개 행정동이 신설됩니다.

2022년 1월 3일 고양시
흥도동 / 삼송동 / 행신3동
중산동 / 탄현동 / 송산동
분동 실시

변경전	변경후
흥도동	흥도동, 삼송2동 일부
삼송동	삼송1동, 삼송2동 일부
행신3동	행신3·4동
중산동	중산1·2동
탄현동	탄현1·2동
송산동	덕이동, 가좌동

고양시

2021 대한민국 기관·서비스대상
'특별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고양in 행복소식

고양소식

GOYANG CITY MAGAZINE | 2021 DECEMBER | 12 VOL.348

CONTENTS

04 고양 돌보기 1
2021 시민기록물 특별전

06 고양 돌보기 2
고양드림영어마을

08 세월 ZOOM IN !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설치

스마트폰 으로 스캔하시면
고양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 만경사진발생상 고양시 대상 수상작 '만경대의 환희'(홍희수)

Contents

2021 December vol.346

원하는 목차로 바로가기
'고양소식 스마트'
선택하면 다시 돌아

꿈꾸는 고양

04 고양돋보기 1
2021시민기획을 특별전

06 고양돋보기 2
고양드론영상상영회

08 사람ZOOM IN 1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설치

10 사람ZOOM IN 2
단독필라 안상환경관리인

12 사람ZOOM IN 3
고양시시민안전센터

함께하는 고양

14 가볼 만한 고양
늦깎골 시간여행

16 소셜기자가 간다
은행수거그물망 살리

18 고양시퍼퍼퍼
고양시 첫 주민주도형태로
선발된 김선미 홍도동장

20 우리 동네 이야기

22 살래라이프
- 오카리나연주봉사단
- 오월세대 새로운 모색
트랜드 엿보기

26 꿈꾸는 청소년
청소년 의욕이 역사 경제유산 학술가

28 아동·청소년 정보
청소년자유광장

소통하는 고양

30 인공지능공모전 수상작
수필 분야 우수상

32 백과사전
정책평가기의 기술

34 이달의 문화행사

36 시정 유관기관 정보

38 도서관 정보

40 의정소식 / 건강상식

42 카툰
고양지원법원 송격

44 고양시 유튜브 핫클립Hot Clip

46 고장 사랑방 / 문예마당

48 정책퀴즈

북한산 만경대(萬景臺)

만 가지 풍경 즉 삼라만상 온 세상을 두루 다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만경대는 백운대, 인수봉과 더불어 삼각산이라 부르는 한 봉우리로, 백운대와 마주하고 있다. 백운대의 관문인 위문에서 성곽을 따라 북쪽으로 400m를 오르면 백운대, 반대로 남쪽 방향으로 300m를 오르면 만경대다. 이곳은 백운대와 더불어 북한산에서 가장 유명한 일출 포인트 중 한 곳이기도 하다.

Cover Story

다달이 찾아오는 다른 모양의 그림들. 언제 봐도 늘 새롭고 신비로운 고양시 봄의 풍경을 담은 시민기획을 특별전시인 '아이디어를 비밀스럽게 해결한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사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시정에게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하는 월간지 <고양소식>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양시청 홈페이지→놀우루고양→시정소식지→구독신청 및 주소변경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실 고양소식 담당자
  전화 031-8075-2093 팩스 031-8075-4604 이메일 gyxxx@korea.kr

발행인 고양시장 이재준 **편집인** 언론홍보담당실장 **제작처** 홍보기획팀(박영기 / 주무관 김정로)
편집위원 김진영 / 김은정 / 노경진 / 오윤석 / 윤재진 / 이경희 / 이상철 / 이정순 / 장지선 / 정원일 /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이루고동로 **이메일** gyxxx@korea.kr **기획·디자인** 디에이치커뮤
발행일 2021년 12월 22일

고양! 30년을 담다, 특례시로 날다

2021 시민기록물 특별전

고양시는 2021년 시 승격 30년을 맞아 공모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고양시 기록물을 전시하여
고양시의 지나온 역사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전시는 2개에 걸친 순회전시로, 1차는 스타필드, 2차는 킨텍스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시민 개개인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통해
앞으로 고양 30년을 그려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우 체부 시절(권영식)

농촌우체국 근무 당시 급여명세표 및 발령통지서, 모자, 송달용 군수 시절 카탈로그

지하철 개통 기념 승차권(한영철)

1995년 지하철 3호선 개통 기념 승차권

연락장(이현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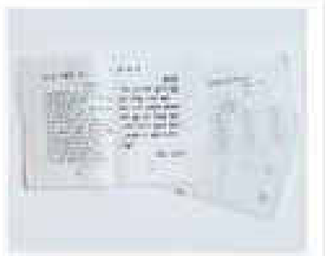
유치원 시절 졸업카드, 연습장 및 초등학교 학년 교과서와 연락장

각종 티켓과 축하 코사지(김영태)

일산선 개통 기념 행사를 대한 코사지일산선, 지유로 준공, 복선 전철 개통식)

고양세계꽃박람회(이영찬)

1996년 고양세계꽃박람회 배지와 명찰 및



학급문고(한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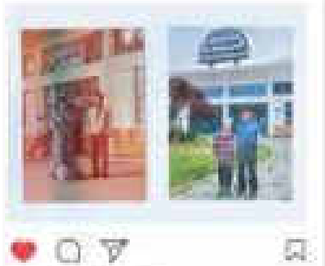
1970년 지동중학교 학급문고 한 권과 학생 비상연락망

호수공원 썰매장의 추억(김혜경)

2001년 겨울 호수공원에 만들어진 썰매장에서 가족들과 즐거웠던 추억

고양군 관내도(한명식)

시절 승격되기 이전 고양군 시절의 관내도



농촌마을에서(김홍기)

멀리 여행을 떠나시는 부모님의 사진을 찍었던 농촌의, 40여 년 후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이 채웠다.

드론영커센터 (2025)

드론기업과 함께 '고양드론앵커센터'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고양드론앵커센터(Goyang Drone Anchor Center)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화전지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며
현재 화전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24㎡ 규모로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경기 북부 최대 '드론밸리'로 성장해나갈 고양드론앵커센터의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자.

■ 경합동(고양시 산업진흥과 주무관)

미래 드론산업을 위한 초석

드론기업들은 드론 연구개발을 위해 테스트 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필요로 하는데,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실내드론비행장을 비롯한 드론R&D센터와 입주공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할 드론기업들에는 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학생 해공원 내 '고양대학드론비행장'도 함께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보다 좋은 비행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다양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드론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관계 기반, 대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 기반을 넓힘으로써 드론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고양드론앵커센터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드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드론'이란 말이 더는 낯설지 않게 된 요즘, 우리는 하늘을 수놓은 드론쇼, 방송·영화에 사용되는 항공촬영, 음식 배달 서비스, 드론택시와 안전진단 등 각종 산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생활 속에서 드론의 영향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는 드론택시까지 상용화될 것이라 하니 그 활용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드론 비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안전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제 체계가 필요하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고양시 드론 관제 시스템(일명 'GO-UTM')을 구축하여 고양시 내에서 운용되는 드론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GO-UTM과 연계한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드론의 비행량이 늘어날수록 안전사고를 정확하게 통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GO-UTM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영커센터 (2025)

일상 속 드론문화 구축에 앞장설 것

2021년 3월부터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수가 됐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이러한 드론 자격증 분야 교육을 관내 비행교육원과 협업하여 진행할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드론 제작·조종·체험·안전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드론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감소하는 것에 반해 최대 5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되는 드론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앵커센터에서는 전국 드론축구 동호회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양드론축구 리그제를 운영하고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배구·낚시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함께 실현해나갈 드론산업의 청사진

고양드론앵커센터는 고양대학드론비행장과 더불어 드론산업을 고양시의 지속산업으로 성장시킬 요람지가 될 전망이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이용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함께 고양시의 드론산업을 육성하여 화전지역이 경기 북부 최대의 드론밸리로 성장하는 것을 꿈꾼다. 앵커센터를 허브로 그 주변 지역이 드론 관련 기업들로 채워지면 드론산업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고양시가 기획한 드론산업의 청사진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고양시의 지속산업과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끝

버스 기다리면서 충전하세요!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설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생활문화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카드 결제를 하는 등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돼 버린다면?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시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스마트폰 무선충전기'가 설치됐다.

글 시민 이음산고양시 버스정책과 부팀장

고양시 관내 설치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소중한 시민 아이디어를 현실로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인과의 통화, 메시지, 정보검색, 음악감상 등 한시라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 정도로 스마트폰과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하면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급한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내에 스마트폰 충전기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시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번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설치'가 현실화되었다.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어떻게 설치됐나

시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설치 현장 여건, 버스정류장 쉘터 사업물과의 조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선, 버스정류장 쉘터 내 굴곡이 있는 의자가 설치된 중앙로 쉘터에는 벽부형, 평탄한 의자가 설치된 기로변 쉘터에는 매립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버스 이용객의 동선과 공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했다.

기성 충전기 제품들은 옥내형으로 제작되어 있어 눈과 비에 노출된 버스정류장 쉘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타 시군에서 설치했던 유선 케이블을 이용한 스마트폰 충전기는 설치 당시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어 잦은 고장이 발생했다. 특히 충전기 고장의 99% 정도가 케이블에서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전 케이블을 교체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설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고민한 결과,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를 개발하고 고양시 전역 100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완료했다.

버스정류장은 진화중

벌써 버스정류장에서 무선충전기를 사용해 본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배터리 부족으로 교통카드 결제가 안 되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최고네요', '점점 짧아지는 배터리 사용시간으로 멀쩡한 휴대폰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해결되네요',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 감사합니다' 등의 사용 후기가 각종 SNS에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거창한 사업보다는 이처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버스정류장은 이제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무더위, 한파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진화해 가는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버스정류장 내 선풍기, 난방기, 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비전 지인건

정비후 지인후

아파트엔 환경미화원이, 단독빌라엔 안심환경관리인이 있다

고양시 단독빌라 주변 주택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도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고양시 단독빌라 주변을 지나다 보면 이 같은 쓰레기, 폐기물 더미는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아파트와 다른게 단독빌라 주변은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미화원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단독빌라 주변은 늘 정부로 버려진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오물들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쓰레기의 재활용품 등을 규격봉투에 담아 정한 장소, 지역사람에 내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양시 마두동 단독주택 골목, 초록색 조끼를 입고, 손에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치우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들이다. 이들 안심환경관리인들은 보대를 들고 고양시 내 단독빌라 주택가 골목을 돌며 여기저기 어지럽게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치우고, 재활용품들은 마대자루에 담거나 정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안심환경관리인 90명 환경미화에 나서다

고양시는 단독빌라 주변에 무단투기 폐기물과 쓰레기를 처리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5세 이하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심환경관리인을 모집. 고양시 내 15개 동 45개 빌라 주변 환경미화 작업에 들어갔다.

대부분 40~63대인 안심환경관리인 90명은 지난 10월 20일부터 거주지 인근 단독빌라를 맡아 하루 5시간씩 돌며 골목길에 버려진 폐기물을 정리하고 쓰레기들을 줍고, 빌라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있다.

안심환경관리인 유선재(65세, 마두1동) 씨는 그동안 고양, 파주 등 관공서에서 청소 관련 일들을 많이 해오다 집시 쉬고 있던 와중에 안심환경관리인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됐다며 "내 손으로 빌라 주변을 치우고 정리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까지 상쾌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이 일하는 안심환경관리인 고명희(62, 마두1동) 씨도 "쓰레기를 줍고 폐기물을 정리하는 일은 몸을 움직이기에 운동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동네도 깨끗해지고 돈도 벌고 일하나 좋은 일하나"면서 일하는 기쁨을 표현했다.

이처럼 열심히 단독빌라 인근을 청소해주는 안심환경관리인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최근 빌라 골목길이 산뜻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며 안심환경관리인들에게 수고한다고 음료를 건네는 등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단독빌라 주변 지속적인 환경미화 서비스 필요

시민들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단독빌라 주변에도 아파트처럼 언제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장소와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심환경관리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양시에 따르면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 활동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내년에도 단독빌라 도심환경미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안심환경관리인 고명희

안심환경관리인 유선재

고양시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

기간 2021. 10. 20. ~ 2021. 12. 24.
활동 고양시 15개동 45개빌라 주변
문의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031-8075-3017)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고 시민을 지키는 눈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지난 7월 어느 새벽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우산도 없이 폭우를 맞으며 배회하고 있었다.
이 모습은 CCTV를 통해 포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이었다.
야간근무 중이던 CCTV 관제요원은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실시간 상황전파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어르신의 신변을 확보한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시민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를 살펴보자.

글. 자료.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는 어떤 곳?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는 지난 2016년 3월 2일 CCTV 통합관제센터로 개소한 이래 37명의 관제요원과 9명의 공무원, 경찰관, 시스템유지 보수요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고양시 전 지역에 설치된 8,000여 대의 CCTV를 관제하여 상황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 및 재난재해, 국토방위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CCTV통합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한다.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

고양시 시민안전센터의 대표적 주인공은 바로 CCTV 관제요원이다. 관제요원들은 고양시 관내 시설의 안전과 집중감시구역의 범죄예방, 시민안전보호를 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민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최정숙 관제요원은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범죄예방은 물론 실종, 화재, 119응급상황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면밀히 관찰한다.

"범죄 발생 우려 시 적절한 계도방송과 집중 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된 사람을 가족 품에 안게하게 될 경우에는 작게나마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다.

"작년 1월 어느 늦은 밤 백마역 인근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며 길을 잃고 헤매는 지적장애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올해 5월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용현초교 앞 노상에서 이상행동을 하여 절뚝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구조대상자를 발견 112 신고 조치로 안전하게 보호지에 인계했습니다."

최정숙 관제사는 사건 해결이나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받을 때나 가족들도 고생한다며 '엄마 최고'라는 말을 해줄 때면 정말 일에 대한 자부심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시민안전센터가 함께하는 안전한 고양

오늘도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들은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소형주택 밀집 지역, 뒷골목, 청소년 통학로, 여성안심귀갓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쉴없이 움직인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CCTV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시민의 안전사고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민 누구나 안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작게나마 이바지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끝

시민안전센터 영상 보러가기

CCTV 관제요원 최정숙 관제사(좌) 촬영 고양시 유튜브

시민안전센터(고양시) 촬영 고양시 유튜브

마을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높빛골 시간여행

1625년부터 1914년까지 고양시의 중심이었던 고양동은 고양군청, 벽제관 등 주요 관청의 소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써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고양동의 400년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나섰다. 마을해설사와 함께 고양동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자.

글 사진 홍보팀(고양 관광사업단)

고양동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 '내 고향 고양을 소개합니다'

고양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을 소개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지난 4월 2021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에 '고양동 높빛 고을길이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역사학자, 여행전문가의 스토리텔링 교육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 마을해설사들의 첫 업무는 높빛고을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마을 주민이라는 애정을 살린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었다.

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마을해설사가 들려주는 높빛골 시간여행

1. 고양동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벽제관지

높빛고을길 시간여행의 첫 번째지는 벽제관지 터, 벽제관지다. 벽제관은 중국과 조선을 잇는 외주길에 위치했던 10개의 역참 가운데 첫 번째 역으로, 중국의 사신이 한양에 들어가기 전 필수로 이틀씩 쉬었던 곳이었던 곳이다. 단순한 숙소로 보기에는 그 역할이 매우 중대했는데, 외교 사절인 벽제관에 도착하면 정승급 인사가 사신을 영접하여 상호주의 의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조정에 전달하여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접차관급 회의 정도인 셈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이 일부 시설물을 일반출하는 등 그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한국전쟁 때 무참하게 남아 있던 정문 '심인도홍살문'의 소실의 현재는 빈터만이 설움이 남아 있다. 최근 벽제관지 발굴조사를 통해 벽제관 원형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고양동의 모습이 들썩이고 있는데, 정밀한 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옛 모습을 되찾기를 희망한다.

위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로 34-16

2. 고양동의 수호 은행나무

벽제관지를 따나 고양동의 보호수,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고양동의 은행나무는 수령이 무려 600여 년으로, 얼핏 보면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 암그루와 수그루가 한 데 붙어 자란 것이다.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자랄 경우, 보통 한쪽이 말라 죽지만, 신기하게도 두 그루 모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다. 6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세월의 풍파를 견딘 은행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어 산신제, 동제 등을 통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위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58-14

3. 고양향교 수령 은행나무

은행나무를 뒤로하고 찾은 곳은 고양향교다. 현재의 중고등학교 역할을 했던 향교는 조선의 대표적인 지방 교육기관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던 설명드린다고 한다. 고양향교는 수차례 건물을 개수하여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원래 향교가 있던 자리는 앞서 소개했던 600년 가까운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다.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가르침에 따라 향교 근처에는 반드시 은행나무를 심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고양향교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양향교.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예약을 통하여 참여 가능하며, 향교의 유래 등을 배우고 전속놀이 체험도 할 수 있다.

위치 고양시 덕양구 대장로고봉민길 33-13

4. 중남미 문화의 중 심장에, 중남미문화원

높빛고 둘길의 마지막 여행 장소는 중남미문화원이다. 중남미문화원은 국내 유일의 중남미 관련 박물관 겸 미술관이다.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이복형 원장과 홍갑표 이사장이 직접 수집한 문화 예술품 1,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수천 년 전 중남미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중남미문화원은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현재까지도 한국과 중남미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중남미문화원, 고양동 여행의 피날레가 아닐까 싶다. 끝

위치 고양시 덕양구 대장로고봉민길 33-13

고양시 은행나무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은행수거 그물망 설치

은행나무는 가뭄, 해충, 공해 등 식재 환경에 내성이 높고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대기와 토양의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정화능력이 뛰어나 가로수나 조경수로 매우 적합한 수종이다. 가을이 되면 노란 단풍이 물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마관에 심취해 있다가 은행나무 열매의 독특한 냄새가 풍겨올 때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에 고양시는 은행수거 그물망을 설치 악취 방지에 나섰다.

글 사진 박동훈(고양시소셜기자)

은행수거 그물망으로 수거되는 열매들

열매 악취로 천덕꾸러기가 된 은행나무

은행나무 가로수는 여름엔 푸르게, 가을이면 노란 낙엽으로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는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국의 어느 도시든 가로수로서의 은행나무는 길어가는 가을의 천덕꾸러기 입장이 되곤 한다.

길바닥에 툭툭 떨어진 은행열매가 사람 발에 밟히고, 차바퀴에 짓이 으깨어지면서 구린내 같은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다. 이 냄새는 은행알을 둘러싼 외피 과육의 물질인데 은행이 해충이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방식이라고 한다.

은행수거 그물망 설치

고양시는 매년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로 발생하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수거 그물망을 설치했다. 은행나무로 인한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가장 처음 설치된 은행수거 장치의 아이디어는 뛰어났지만, 조금의 불편이 있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없이 제작되어, 간혹 너무 크거나 특이한 모양으로 자라난 은행나무에는 대응이 어려운 점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한층 발전된 은행수거 장치를 제작했다. 새롭게 태어난 은행수거 장치는 설치 각도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고, 길이는 최대 4m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고양시는 도심지 내 주요 도로의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에 위치한 은행나무에 우선적으로 은행수거 그물망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은행 열매를 채취할 인력을 동원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직접 살펴보니 은행이 열리는 나무에 설치된 그물망으로 열매가 떨어져 한곳에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덕분에 길거리 바닥은 으깨어진 은행열매가 없어 악취도 나지 않고 깨끗했다. 작은 아이디어와 고양시의 노력으로 악취 없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끝

길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는 은행열매

은행나무에 열매가 안보이기 위해 덮은 그물망

은행나무 가로수길

"지역 특성 살린 행정으로
살기 좋은 흥도동을 만들겠습니다"

고양시 첫 주민추천제로 선발된 김선미 흥도동장

주민 투표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는 제도인 주민추천제가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됐다. 김선미 신임 흥도동장은 48명의 주민추천인단이 직접 뽑은 고양시 첫 주민추천제 동장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발한 자리인 만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동력을 얻은 것 같다고 말하는 그의 각오는 남달랐다.

글 박선영(편집부) 사진 최형우

주민이 직접 뽑은 첫 동장

김선미 동장은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고양시 첫 주민추천제 방식을 통해 동장으로 임용됐다. 고양시는 그간 내부공모방식을 통한 동장 주민추천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후보자를 모집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김선미 동장은 '첫 선례'가 되었다는 부담은 있지만,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무척이나 달라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지난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 동 운영계획을 PPT로 발표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주민분들에게는 무척 신선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웃음). 하지만 10년 전 흥도동주민센터(당시 동사무소)에서 3개월가량 행정팀장으로 일했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마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주민들 앞에서 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 모두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낯설고 얼떨떨했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아주신 첫 동장이니까요."

'첫 주민추천제로 선발된 동장'이라는 타이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응원해주는 주민들이 있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김 동장. 책상 앞에 앉아 머리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 밖으로 나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며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이다.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을 위해

인구 4만8천여 명의 도농복합지역인 흥도동은 현재 고양시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다. 과거 자연부락 중심이었던 이 동네는 2012년부터 원흥지구 개발을 통해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됐으며, 인근 창릉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내년부터는 동 산실로 인해 일부 지역(고양6동, 북축)이 흥도동에서 삼송2동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때문에 더욱 빨도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김 동장은 말한다.

"흥도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동네이고, 주민들 역시 초상 대대로 한마을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원흥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때문에 원주민과 신규 유입인구의 조화가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도시와 농촌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신구가 조화를 이루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이 필요

지역의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동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행정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물론 이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흥도동은 역사가 깊은 곳인 만큼 문화유산 중의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마을축제로 발전시켜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이끌어나가는 자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에요. 또한, 다양한 문화재와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충분히 누리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 내 고장 바로알기, 문화유산 탐방 등 애향심을 제고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는 데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주민추천제로 임명된 첫 동장인 만큼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힌 김 동장. 앞으로 주민자치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해나갈 흥도동의 나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끝